

부정선거를 때려잡아라!



세종시의원 후보

5 임재옥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강사, 경제학 박사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제1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5	자유와혁신	임재욱	남	1981.10.28. (44세)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약학대학 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통계학과 졸업 (경제학박사)	(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본원 박사후연구원 (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약학대학 강사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 (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575,917	575,917		부:고지거부		해군(해병대) 병장 (만기전역)		

3. 세금 납부.채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채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채 납 내 역		
		채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채납액	
계	61,604	0	0	
후 보 자	61,604	0	0	
배 우 자				
직계존속	부:신고거부			
직계비속				

4. 소명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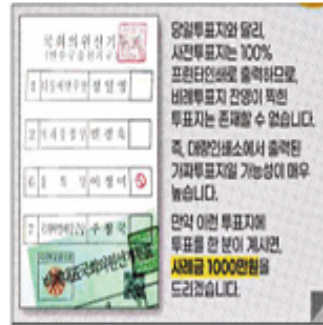
Q

투표용지 두 장이 겹쳐 인쇄된 투표용지(일명 '배춧잎 투표지')는 부정선거의 증거인가요?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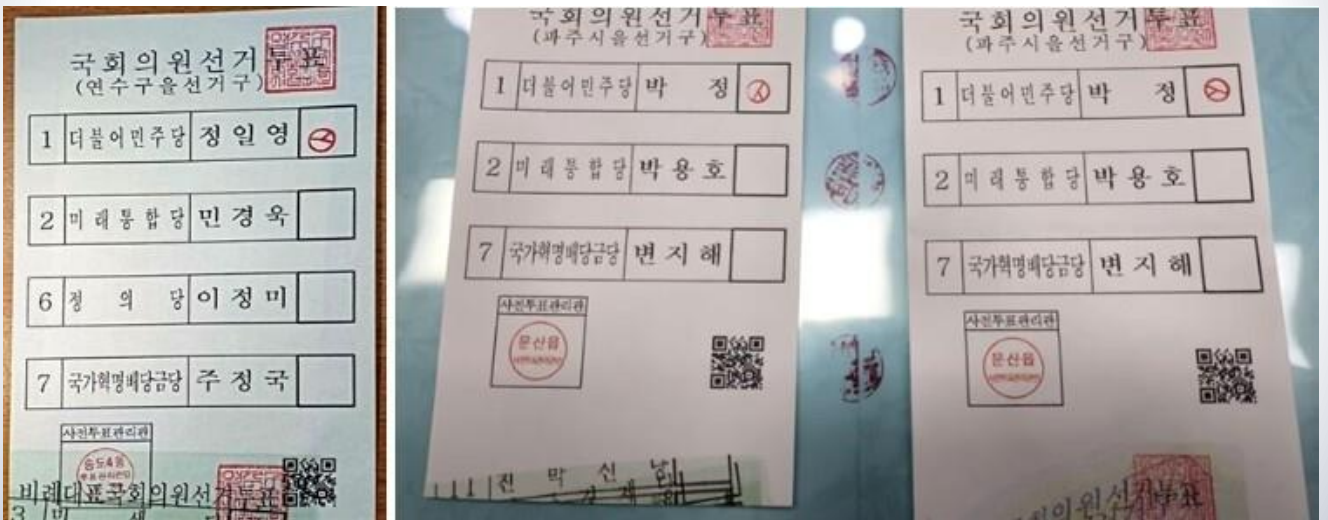
아닙니다.

-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의 색상은 지역구는 백색, 비례대표는 연두색입니다.
-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재발급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이러한 실수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미지출처: 선관위

그런데 말입니다



*사진출처: 프리진뉴스

실제로 이런 투표지를 받는다면 바꾸지 않고 그대로 투표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3명이 그대로 투표했는데 선거 당일(2020.04.15) 개표에서 이것들을 하나도 못 발견 할 수 있을까요?

선거 당일 개표에선 하나도 못 발견했는데 1년 넘게 지나(2021.06.28, 2021.11.12) 재검표에서만 발견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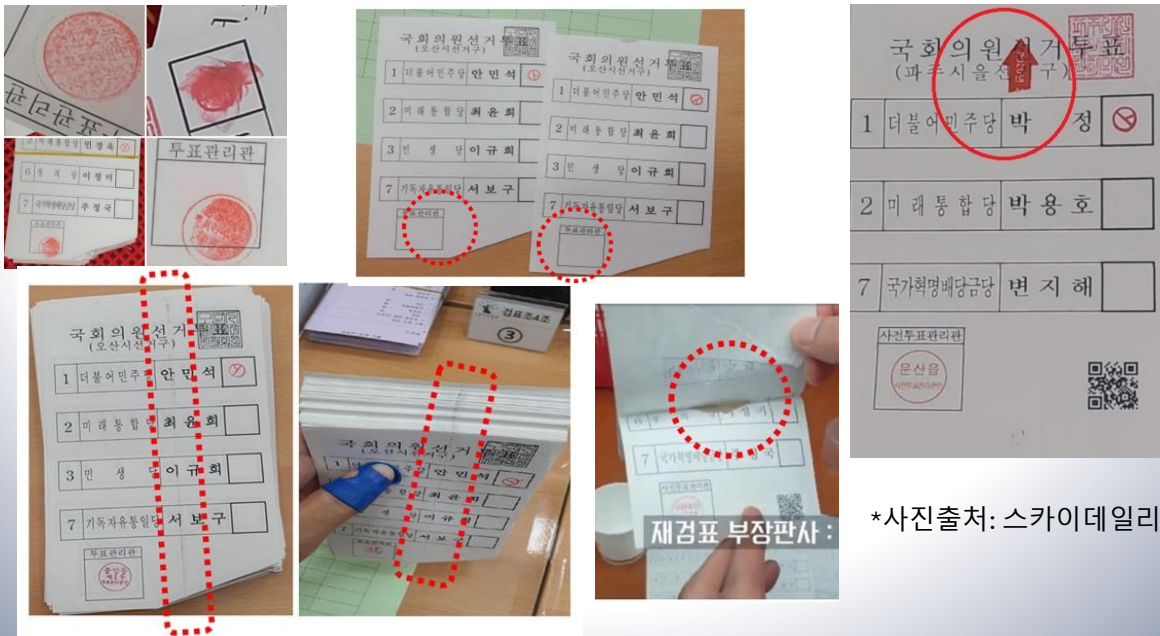


"접힌 후, 원상태로 회복" 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재질 종이가 있을까요?



*이미지출처: 선관위영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출처: 스카이드에일리



선거 당일 개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수많은 이상투표지가 1년 넘게 지나 재검표에서만 발견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함을 바꾼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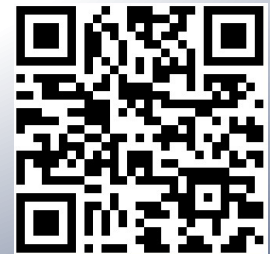
*이미지출처: JTBC

이렇게는 못하는 걸까요?



*이미지출처: YTN

또는 이렇게는 못하는 걸까요?



*이미지출처: KBS

왜 자유와 혁신인가?

자유와혁신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10년

자유와혁신, '가짜 도장' 찍은 투표관리관 무더기 고소

© freedominnovation *이미지 출처: 조선일보

자유와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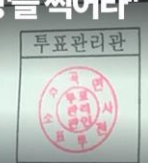
자유와혁신, 6·3 대선 '가짜 도장' 무더기 고소

- 자유와혁신당 감시단이 지난 6·3 대선 투표관리관들을 대거 고소했습니다.
- 고소 이유는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 대신 선관위가 배부한 '가짜 도장'을 찍은 혐의입니다.
-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교부 시 관리관 자신의 '개인도장'을 찍도록 명시합니다.

© freedominnovation *이미지 출처: KBS

자유와혁신

선거법의 명령, "내 도장을 찍어라"




- 공직선거법이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명시한 이유는, 개인 도장으로 진정성을 보증해 **선관위의 부정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보다 하위 지침인 '사무편람'을 내세워, 공무원들에게 일괄 제작한 '가짜 도장' 사용을 강요하며 법을 어겼습니다.

© freedominnovation *이미지 출처: 경남도민일보

자유와혁신

선관위표 '가짜 도장', 무엇이 문제일까?



- 투표관리관(도장)과 선관위(투표용지)가 분리되어야 상호 견제하에 선거 무결성이 지켜집니다.
- 선관위가 일괄 제작한 가짜 도장 사용은 이러한 상호 견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 더 나아가 선관위가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 freedominnovation *이미지 출처: 뉴스3

자유와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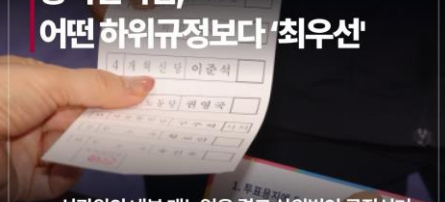
공소시효 무려 '10년', 시한폭탄을 안다

- 선관위는 가짜 도장 사용은 적법한 행위이니 안심하고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공직선거법의 하위 지침인 사무편람을 우선시하라는 안내는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직무유기를 교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일반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 선거범죄는 10년입니다. **가짜 도장을 찍은 관리관들은 향후 10년간 언제든지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freedominnovation *이미지 출처: 조선비즈

자유와혁신

공직선거법, 어떤 하위규정보다 '최우선'



- 선관위의 내부 매뉴얼은 결코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 공무원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도 법령 위반이 명백한 관행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 freedominnovation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자유와혁신

투표관리관 여러분,

다가오는 선거에서 반드시 **개인 도장을 챙겨 직접 날인**하십시오.

가짜 도장이 찍힌 투표지, 진짜 민주주의를 담을 수 없습니다.

위법한 관행의 대가, **10년이 지나도 국민이 끝까지 묻겠습니다.**

© freedominnovation

자유와혁신

선거의 주인은 선관위가 아닌 '국민'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지침도 우리의 헌법적 권리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국민주권 #자유와혁신

© freedominnovation



*한미일보



자유와혁신
Freedom & Innovation

왜 임재옥인가?

- **임재옥은 진실을 추구하고 알립니다.**

한 명의 학습자이자 교육자로서 대단치 않은 성취라도 평생 학문의 길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정치는 남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정선거 세력이 세상을 거짓으로 뒤덮었습니다. 이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거짓이 그대로 역사가 되고 후세까지 이어집니다. 부정선거 세력의 권력에 굴복하여 침묵하는 다수에서 벗어나,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하는 소수에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따위의 이념 대립이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임재옥은 진실을 추구하고 알립니다.

- **고향 조치원과 모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를 사랑합니다.**

태어나서 현재까지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조치원에서 살고 있고, 그 중 절반 이상의 기간인 20세 부터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조치원의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학사, 석사, 박사, 교원으로 재학 하였고 재직중에 있습니다.

세종 신도시 개발에 대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구도심 조치원이 발전하려면 고려대, 홍익대 세종캠퍼스가 서울캠퍼스, 그 이상의 명문대로 도약해야 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시 또한 지속 발전을 위해선 수도 위상에 걸맞은 명문대가 필요합니다. 고려대, 홍익대가 발전하면 조치원과 세종시가 함께 발전합니다.

- **고려대, 홍익대 세종캠퍼스 명문대 도약을 위해**

- 2024년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인 세종시, 지역대학(고대, 홍대 등), 연구기관 협력 플랫폼 확대 방안을 구상하고 학교와 세종시에 제언
- 대학 졸업 후 세종국책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대덕연구단지 등으로의 취업 및 진학 기회 확대 방안 구상
- 대학생, 청년이 주말에도 남아있는 젊은 조치원 조성 방안 구상



자유와혁신
Freedom & Innovation

임재옥이 걸어온 길

출생

충남 연기군 서면(세종시 연서면)/ 1981년생

학력

조치원 교동국민(초등)학교

조치원 중학교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부설)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학과 (경제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통계학과 (석사, 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이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계데이터과학과 (이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언론학사)

학점은행제 한국어학 전공 (문학사, 한국어교원)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재학

경력 및 사회활동

해병대 제2사단 헌병대 병장 전역

석탑야간학교 (조치원) 교사 (교육 봉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간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전충남 일본학과 학생회장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약학대학 연구교수, 강사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연구교수, 강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 박사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대전) 겸임연구원

(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약학대학 강사

(현) 자유와혁신 세종특별자치시 을 당협위원장

(현) 자유와혁신 부정선거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현) 자유와혁신 자유연구원 통계분석팀장

**고려대, 홍익대
세종캠퍼스를 위하여**

청년을 위하여



조치원을 위하여

세종시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